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요구 분석\*\*

## Analysis on the Housing Needs for Young Adults Living Alone

**Author** 이소영 Lee, So-Young / 정희원, 중앙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 전공/ 대학원 공간디자인 전공, 교수, Ph.D.  
엄순철 Eom, Soon-Cheol / 정희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간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Abstract** The number of household living alone including young single adults has gradually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mand on housing options, additional space, shared space, community facilities, housing service for young adults living alone includi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180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housing location, commuting distance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and amenities are the second important feature. For additional spac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ingle residents. Female residents want to install dress room most while male adults want to have a study room. For the shared house option, single adults concerns housing fee and living cost most. However, female adults concern safety and security issues much more than male ones do. The degree of preference to community facilities varies between male and female single residents. The findings suggest more differentiated approaches are needed for alternative housing options for male and female residents.

**Keywords** 1인가구, 주거 요구, 공유주거, 청년 주거  
Household Living Alone, Housing Needs, Shared Housing, Housing for Young Adul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와 함께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1인 가구는 2000년 15.4%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하였으며<sup>1)</sup>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소형 중심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은 36.5%를 차지하며, 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밀집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수요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sup>2)</sup>

이런 가운데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공유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1> <표 2>와 같이 WOOZOO, 달팽이집 등 민간에서 운

영하는 셰어하우스가 공급되고, 공공 차원에서도 LH달팽이집과 같은 공동체주택, 빈집·고시원 리모델링형 셰어하우스 등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 창업인들의 안정적 주거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시설 및 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을 보급하고자 판교에 이어 6곳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에서 공유주거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매입 또는 임대 후 구조 변경 없이 공급하는 형태로 기존 주택의 평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sup>3)</sup> 최근에는 점점 커뮤니티 시설이 강화되는 반면 개인적 공간 역시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가변적, 선택적 옵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발전하는 양상 또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증하는 청년 1인가구의 이용 주체별 공간사용빈도와 그에 따른 공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sup>4)</sup> 현재 원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ceom1@naver.com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R1A2B4014631)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주최한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복지동향, 2015, pp.5-7

3) 지예진, 신화경,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권, 1호, 2017, p.145, p.147

중심의 주거 양상은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거 불안정과 범죄 불안감 등으로 인한 차별화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청년 1인가구의 주거 현황과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계획 시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주거요구와 공간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주거 내 추가적인 공간,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 선호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성별에 따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다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계획 방안을 세우고 차별적 주거대안을 마련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시내 동,서,남,북 4개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73명과 서울 내 거주하는 35세 이하의 청년<sup>6)</sup> 1인가구로 사회초년생 107명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셰어하우스의 주거요구에 대한 설문은 4개 권역의 캠퍼스와 서울대입구, 대학로, 강남 일대에서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으며 SPSS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 2. 선행연구

### 2.1. 청년 1인가구 주거문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00년 15.4%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중 3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소형 중심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이 요구되고 있다. 1인 가구의 36.5%가 20-34세 사이의 학생 및 사회초년생으로 서울(20.7%), 경기(18.6%)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해있다. 서울의 경우 1인가구의 51.7%가 청년층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45%)이 절반에 가까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직장가가깝거나 출퇴근이 쉬운 도심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과 경제적 빈곤은 가중되고 있다.<sup>7)</sup> 청년 1인가구의 대다수

가 보증부 월세 및 월세 비율이 높은 임차가구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은 58.2%로 1인 거주 청년층의 절반이 넘는다.<sup>8)</sup>

이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도입,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sup>9)</sup> 많은 청년 거주자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 고시원, 반지하 등의 열악한 공간을 찾게 되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 2.2.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대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서 대표적 주거 유형으로 셰어하우스를 꼽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란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생활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컬렉티브 하우스, 그룹하우스 등 유사 형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를 찾아 공유주거의 한 형태인 셰어하우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유 주거의 특성과 거주자의 수요자 인식조사, 향후 발전방향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sup>10)</sup>

청년 1인가구 중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주거의식은 다양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형태의 주거공급은 여성 1인가구에 적합하지 못하며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차별적인 주택정책과 계획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sup>11)</sup> 또한 청년 1인가구 중 대학생을 위한 주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거대안으로서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해외사례가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해상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평면 계획을 제시하였다.<sup>12)</sup> 청년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상, 여성과 남성에 따라 주거 요구가 상이할 것으로

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권, 1호, 2017, p.146

8) 최은영 외,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2014, p.33

9)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 복지동향, 2015, pp.7-11

10) 지예진, 신화경,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권 1호, 2017, pp.145-146. 박지은, 강순주, 모정현, 셰어하우스와 플랫형 기숙사의 특성분석과 대 학생 수요자 인식,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8권, 2호, 2016, pp.121-122. 임지수, 권오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공유형 셰어하우스 탐색과 발전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8권, 2호, 2016, p.241

11) 김진영,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 계획을 위한 주거의식과 주거요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4권, 4호, 2013, p.109

12) 이종찬, 강운도, 김병선,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거주 활용계획 연구-암스테르담 대학생기숙사 키트보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2014, pp.62-64

4) 오이현, 유진상, 국내 셰어하우스 내부공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57호, 2017, p.27

5) 김진영,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 계획을 위한 주거의식과 주거요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4권, 4호, 2013, p.109

6)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 (청년의 나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잡음.

7) 지예진, 신화경,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

예상되며 이러한 상이한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을 제외한 청년 가구를 위한 주거대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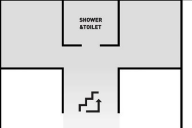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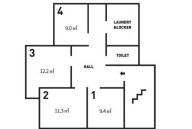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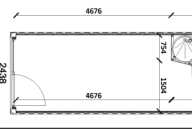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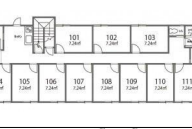


<표 1> 선행연구 정리

논문명	내용	한계점
20대 1인 거주자를 위한 셰어하우스에 관한 연구 <sup>13)</sup>	- 인류의 그 동안의 주거 방식을 조사하고 국내 셰어하우스의 문제점을 분석 - 취미를 통한 공간의 공유 방식을 제안	취미 활동을 위한 평면을 실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셰어하우스 거주자 특성 및 주거공간 인식에 관한 연구 <sup>14)</sup>	- 공간 셰어하우스의 분석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인원, 공유공간, 셰어하우스 중요 요소,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공간의 사례만 조사하여 일반화 시키기 어려움
셰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sup>15)</sup>	- 셰어하우스와 유사개념 정리와 유사형태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 - 셰어하우스 인식, 공간 선호도, 공유특성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공간구성을 제안	평면을 실제로 접목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3> 셰어하우스 운영 기관

구분	운영방식
국내	SH / LH 2013.10.17 시행 서울시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며,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 관리
	우주 (woozoo) 국내 최대 셰어하우스 기업, 2013년 운영 시작 2018년 1월 85개의 셰어하우스 운영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다양한 구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협동조합의 형식을 통해 직접 공급을 통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립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본, 공적 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주택을 건설 및 공급
	삼시옷 (서울 소셜 스탠더드) 2013년 설립. 현재 서울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 도시 공간 및 커뮤니티 연구, 셰어하우스를 위한 기초제도 연구, 공유공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소담소담, 통의동집, 어쩌다집 운영 관리
해외	스마트 데이즈 2012년 8월 설립 일본 관동지역 700여개의 4가지 브랜드 셰어하우스 운영. 건물의 90%가 신축, 남성/여성 전용으로 운영 월 2만엔부터
	GG하우스 매니지먼트 도쿄도 내 130여개 셰어하우스 운영 신축건물, 당일 입주 가능 월 3만엔부터, 보증금 보증인 불필요

<표 2> 공급 중인 셰어하우스

구분	형태	층별 평면	명칭	특성	운영 기관
국내			소담소담	여성전용, 최대 10명 입주 가능 5층 중 2,3,5층에 거주 구역 4층에 부엌과 라운지 배치 및 1층에 간이 라운지 배치 주차불가, 반려동물 불가	서울소셜 스탠더드
			통의동집	여성전용, 최대 7명 입주 가능 1층은 소규모 행사 및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라운지로도 활용, 지역 공동체와의 접이치대로서 역할.	
			창업지원 주택	재택근무를 위해 주택 내에 오피스 공간을 계획 건물 저층부에는 회의부스,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카페 및 소품 등의 다양한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 2019년 입주 예정	LH
국외			키트보넌	12동으로 구성, 1000여개의 수출용 컨테이너를 활용, 천연가스 중앙난방, 컨테이너 당 50리터물 탱크 사용 가능. 시공사가 단지 내 상주 지속적인 유지관리	템포 하우스
			로쿠초 PARK SIDE 지점	중앙복도 형식의 셰어하우스 건물 내 별도의 커뮤니티 시설이 없고, 복도를 중심으로 방 배치	GG 하우스
			신코엔지 4호	여성전용, 스마트데이즈 그룹 내 카보차노바사 브랜드 건물 내 별도의 커뮤니티 시설이 없고, 복도를 중심으로 방 배치	스마트 데이즈

- 심단우, 황의준, 20대 1인 거주자들을 위한 셰어하우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pp.1840-1843
- 김하운, 김태환, 박태원, 셰어하우스 거주자 특성 및 주거공간 인식에 관한 연구, 2017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 한국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발표자료집, 2017.6
- 정다운, 모정현, 셰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11, pp.337-342

## 3. 조사결과

###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환경, 필요로 하는 주거 서비스와 셰어하우스

에 대한 견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180명이며 남자가 48.3%, 여자가 51.7%로 여자가 약간 많았다. 연령은 18~24세가 48.8%, 25세 이상이 51.2%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3.9%, 대학교 졸업이 51.1%, 대학교 졸업 이상이 5%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51.7%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이 43.9% 그 외 4.5%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50만 원 미만이 15.6%, 50~200만 원 미만이 65%, 200만 원 이상이 19.4%를 차지했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f	%
성별	남	87	48.3
	여	93	51.7
연령	18~24세	88	48.9
	25세 이상	92	51.1
학력	고등학교 졸업	79	43.9
	대학교 졸업	92	51.1
	대학교 졸업 이상	9	5
직업	학생	93	51.7
	직장인	79	43.9
	그 외	8	4.5
월 소득	50만 원 미만	28	15.6
	50~200만 원 미만	117	65
	200만 원 이상	35	19.4

현재 거주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일반단독 7.2%, 다가구단독 7.8%, 아파트/주상복합, 연립주택이 각 11.7%, 다세대 33.3%, 오피스텔 21.7%, 기타 6.7%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는 자가 6.7%, 전세 15.6%, 반전세 17.2%, 월세 54.4%, 기타 5% 그 외 미응답이 1.1%를 차지했다. 주택 규모는 30㎡(9평)이하가 55%, 30~40㎡(12평)이하 20.6%, 45㎡(14평)이하 9.4%, 60㎡(18평)이하 8.3%, 84㎡(25평)이하 3.9%, 84㎡(25평)초과 2.8%로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주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가와 전세를 제외한 140명의 주거비용은 월 50만 원 이하가 73.6%, 51~100만 원 이하가 17.9% 100만 원 이상이 2.1%, 미응답이 5%를 차지했다. 다세대 및 오피스텔 점유가 응답자 전체의 55%를, 월세 및 반전세가 전체의 72%, 9평 이하가 55%, 주거비용은 월 50만 원 이하가 73.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된 월소득 표본으로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표 5> 주거특성

특성	구분	f	%
주택유형	일반단독	13	7.2
	다가구단독	14	7.8
	아파트/주상복합	21	11.7
	연립주택	21	11.7
	다세대	60	33.3
	오피스텔	39	21.7
	기타	12	6.7
점유형태	자가	12	6.7
	전세	28	15.6
	반전세	31	17.2
	월세	98	54.4
	기타	9	5
	미응답	2	1.1
주택규모	30㎡(9평)이하	99	55
	30~40㎡(12평)이하	37	20.6
	45㎡(14평)이하	17	9.4
	60㎡(18평)이하	15	8.3
	84㎡(25평)이하	7	3.9
	84㎡(25평)초과	5	2.8
주거 비용 (자가 전세 제외)	50만원 이하	103	73.6
	50~100만원 이하	25	17.9
	100만원 초과	3	2.1
	미응답	9	5

### 3.2. 성별에 따른 일반적 주거요구 차이

설문조사에 답한 응답자(n=180)의 주거요구(주택입지, 주택특성, 확장 및 축소 희망 공간1인가구 생활힘든점, 주거지원프로그램, 커뮤니티 시설 의견 등)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주택 입지

주택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평가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남녀 모두 1순위 항목으로 직장과의 거리/ 교통이용편의를 선택하였으며, 남성 67.8%, 여성 74.2%로 나타났다. 2순위 항목으로 남녀 모두 생활편의시설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방법 및 보안 항목에 대해 남성은 2.4%를 나타낸 반면에 여성은 34.1%를 보여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생활편의에 대한 선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현재 거주 위치 결정 시 고려 사항

고려사항	1순위				2순위			
	남		여		남		여	
	f	%	f	%	f	%	f	%
가족과의 거리	2	2.3	1	1.1	4	4.9	2	2.4
직장과의 거리/ 교통이용편의	59	67.8	69	74.2	19	23.2	15	17.6
자녀보육 및 교 육환경	2	2.3	2	2.2	1	1.2	3	3.5
생활편의시설	10	11.5	8	8.6	36	43.9	30	35.3
주변공원	0	1.1	1	1.1	4	4.9	1	1.2
방범 및 보안	2	2.3	6	6.5	2	2.4	29	34.1
경제적 가치	11	12.6	5	5.4	8	9.8	4	4.7
이웃	0	0	0	0	3	3.7	0	0
기타	1	1.1	1	1.1	5	6.1	1	1.2
계	87	100	93	100	82	100	85	100

## (2) 주택 특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 특성으로 ‘주택 비용의 적정성’ 항목과 더불어 채광, 공기 질, 보안, 냉·난방, 자연환경 쾌적성과 같이 주거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에 대해 높은 수치가 나왔다. ‘실내 분위기’ ‘내구성 안전성’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 특성

	남	여	t 값
주택의 외관	3.57	3.65	-.622
집의 크기	3.85	4.01	-1.319
공간구성 및 배치	4.10	4.08	.268
실내 분위기*	3.93	4.15	-2.009
내구성 안전성**	4.01	4.34	-2.890
채광	4.30	4.39	-.822
공기 질	4.26	4.39	-1.044
보안	4.26	4.40	-1.085
냉·난방	4.36	4.19	1.476
주거외부환경 (발코니, 정원 등)	3.61	3.62	-.109
주차시설	3.54	3.61	-.480
주변 환경	3.95	3.97	-.122
근린시설 접근성	3.76	3.90	-1.153
자연환경 쾌적성	4.37	4.49	-.130
교육환경	3.40	3.26	.993
지역 발전가능성	3.24	3.18	.371
개조나 증축가능성	3.10	3.01	.627
유지관리	3.76	3.71	.363
주택비용의 적정성	4.39	4.31	.618

\* p < .05    \*\* p < .01

‘실내 분위기’ ‘내구성 안전성’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택 내 추가, 확장, 축소 희망 공간

주택 내 추가를 희망하는 공간은 <표 8>과 같다.

<표 8> 앞으로 거주할 주택 내 추가를 원하는 공간

추가 공간	1순위				2순위				3순위			
	남		여		남		여		남		여	
	f	%	f	%	f	%	f	%	f	%	f	%
서재	33	37.9	18	19.4	12	16.2	9	10.6	9	14.8	14	18.7
드레스 룸	27	31	38	40.9	14	18.9	22	25.9	2	3.3	7	9.3
파우더 룸	4	4.6	8	8.6	6	8.1	21	24.7	2	3.3	6	8
팬트리	5	5.7	1	1.1	0	0	11	12.9	2	3.3	11	14.7
다용도 실	11	12.6	8	8.6	10	13.5	7	8.2	11	18	13	17.3
발코니	5	5.7	14	15.1	11	14.9	8	9.4	15	24.6	12	16
창고	0	0	3	3.2	13	17.6	4	4.7	12	19.7	11	14.7
현관 전 실	2	2.3	3	3.2	8	10.8	3	3.5	8	13.1	1	1.3
계	87	100	93	100	74	100	85	100	61	100	75	100

남성의 경우 서재(37.9%), 드레스 룸(18.9%), 발코니(2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1순위 2순위가 모두 드레스 룸이었으며, 3순위로서 서재를 선택하였다.

남녀 1순위인 서재와 드레스 룸이 선택 된 것은 침실과 별도로 다른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내 확장과 축소는 현재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 곳을 확장하면 다른 한 곳을 축소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주택 내 확장을 희망하는 공간으로는 남성은 1순위 주방(28.6%), 2순위 욕실(28.4%) 순으로 여성의 경우 1순위 침실(28.6%), 2순위 거실(22.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역시 주방과 욕실에 대한 확장 희망도가 높았는데, 이는 좁은 평면(응답자의 55%가 30㎡(9평)이하에 거주)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주방과 욕실을 작게 설계한 것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9> 확장하고 싶은 공간

공간	1순위				2순위			
	남		여		남		여	
	f	%	f	%	f	%	f	%
현관	7	8.3	10	11	10	14.9	12	14.1
욕실	20	23.8	13	14.3	19	28.4	20	23.5
주방	24	28.6	24	26.4	9	13.4	15	17.6
거실	20	23.8	17	18.7	15	22.4	24	28.2
침실	13	15.5	26	28.6	14	20.9	13	15.3
기타	0	0	1	1.1	0	0	1	1.2
계	84	100	91	100	67	100	85	100

주택 내 축소를 희망하는 공간으로는 남녀 1순위, 2순위 모두 거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관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처음에는 주택 내 공간 중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축소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용이 가장 적은 곳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실의 경우 주택의 규모가 작은 경우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거실 공간이 청년 1인가구에게는 주거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0> 축소하고 싶은 공간

공간	1순위				2순위			
	남		여		남		여	
	f	%	f	%	f	%	f	%
현관	17	20.7	17	19.3	15	25	12	17.4
욕실	4	4.9	16	18.2	12	20	11	15.9
주방	18	22	16	18.2	7	11.7	9	13
거실	27	32.9	25	28.4	17	28.3	21	30.4
침실	15	18.3	11	12.5	6	10	13	18.8
기타	1	1.2	3	3.4	3	5	3	4.3
계	82	100	88	100	60	100	69	100

#### (4) 1인 가구 생활 중 힘든 점

1인 가구 생활 중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왔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실제 주거 상황에서도 가장 힘든 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8개 항목 모두 여성에게 더 높은 평균값이 나왔는데, 그 중 '경제적 부담' '안전 및 보안' '택배수령 및 발송' '고장수리' '무거운 짐 운반' 항목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의 5개 항목에 대해 여성이 더 힘들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부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안전과 관련 된 항목과 남녀 간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힘든 점으로 볼 수 있다.

<표 11> 1인 가구 생활 중 힘든 점

힘든 점	남	여	t 값
식사준비	3.20	3.32	-.905
가사일 (청소, 빨래 등)	3.17	3.32	-1.040
경제적부담*	3.49	3.85	-2.499
안전 및 보안**	2.30	3.38	-7.868
외로움	2.93	3.25	-1.830
택배수령 및 발송*	2.79	3.15	-2.089
고장수리(등기구교체 등 포함)**	2.52	3.34	-5.595
무거운 짐 운반**	2.82	3.68	-5.376

\* p <.05 \*\* p<.01 (5점 척도를 사용, 값이 높을 수록 힘들게 느낀다)

#### (5)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표 11>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녀 모두 1인 가구 생활 중 경제적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응답 항목에서 1순위 항목에서 대출지원과 주거관리비보조 항목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 하였다.

<표 12>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남		여		남		여		남		여	
	f	%	f	%	f	%	f	%	f	%	f	%
대출 지원	35	40.2	21	22.6	7	10.4	14	19.4	12	21.8	20	31.7
주거 관리비 보조	21	24.1	41	44.1	23	34.3	12	16.7	10	18.2	11	17.5
주택 개량보조	4	4.6	1	1.1	2	3	8	11.1	9	16.4	9	14.3
공공분양주택 공급	13	14.9	11	11.8	21	31.3	18	25	11	20	11	17.5
공공임대주택 공급	14	16.1	19	20.4	14	20.9	19	26.4	11	20	12	19
역모기지	0	0	0	0	0	0	1	1.4	2	3.6	0	0
계	87	100	93	100	67	100	72	100	55	100	63	100

2순위 3순위에서는 대출지원, 주거관리비보조 항목과 공공분양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공급 항목이 서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 항목에서 대출지원과 주거관리비보조 항목에 대해 과반 수 이상이 응답한 것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순위 3순위에서 공공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응답이 높아진 것은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장과의 거리/교통이용편의가 떨어지더라도 부담이 덜한 공공 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커뮤니티시설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표 13 참조> '야외 운동장' 항목에 대해 남성의 반응이 더 높게 나왔지만 '헬스장' 항목의 경우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에 대해 여성들의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요구

커뮤니티시설	남	여	t 값
열린부엌	2.78	2.74	.266
코인세탁실	3.22	3.51	-1.815
공동창고	2.72	2.78	-.382
소규모 작업장	2.89	2.99	-.623
게스트하우스*	2.97	2.59	2.270
다목적행사장	3.03	2.83	1.347
야외운동장**	3.79	3.16	4.324
헬스장	4.01	3.92	.693
주민카페	3.52	3.30	1.350
실내어린이놀이터	3.13	3.02	.585
도서실	3.44	3.66	-1.413
개인업무공간**	3.18	3.69	-2.814
주민텃밭	2.63	2.84	-1.310

\* p <.05 \*\* p<.01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서비스는 무인택배서비스, 무거운 짐 운반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로 여성들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인택배나 안심귀가의 경우, 위의 <표 11>의 1인 가구 생활 중 힘든 점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여성들의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

주거서비스	남	여	t 값
무인택배서비스**	3.70	4.23	-3.851
공구대여서비스	3.60	3.72	-.806
건강상담서비스	3.39	3.24	.937
조식서비스	2.78	2.76	.094
청소서비스	3.32	3.24	.493
카셰어링	3.22	3.04	1.028
24시간 보육	3.05	3.09	-.220
무거운 짐 운반서비스**	3.06	3.51	-2.819
안심귀가 서비스**	3.20	3.95	-4.630

\*\* p<.01

또한 ‘무인 택배 서비스’ 항목의 경우 남성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청년 가구에서 요구도가 높은 주거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 (7) 그 외에 항목들에 대한 요구

1인주거와 공동생활에 대한 항목들 외에 11개 항목에 대해 설문을 실시 한 결과는 아래 <표 15>과 같다. ‘방이 작아지더라도 불박이장은 많을수록 좋다.’ ‘세대내 복층(다락방) 설치하는 공간 활용에 효율적이다.’ 항목에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더 수납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10평대는 빌트인(수납/가전)을 최소화하고 방을 크게 하는 편이 낫다.’ 항목에서 남성이 더 높은 값을 보여준 것과 일맥상통 한다.

<표 15> 그 외 항목들에 대한 요구

주택 세부특성	남	여	t 값
주택 내부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좋다.	3.28	3.51	-1.545
10평대는 빌트인(수납/가전)을 최소화하고 방을 크게 하는 편이 낫다.	3.60	3.34	1.701
실크기가 작더라도 별도의 침실공간 구획이 필요하다.	3.49	3.38	.812
방이 작아지더라도 불박이장은 많을수록 좋다.**	2.76	3.17	-2.778
욕실에서 양변기를 별도의 실로 두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화장실 따로 둬)	3.28	3.04	1.376
전망이나 개방감이 있다면 햇볕이 들지 않는 북향도 상관없다.	2.61	2.37	1.571
세대내 복층(다락방) 설치하는 공간활용에 효율적이다.*	2.99	3.35	-2.327
사용빈도가 낮은 주방의 크기를 줄이고 공동부엌 및 식당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93	2.82	.697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다.	2.90	3.17	-1.679
안전을 위해 경비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59	3.68	-.593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절감된다면, 옵션제품의 제공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예: 빌트인가전, 불박이장)	3.45	3.37	.541

\* p <.05    \*\* p<.01

### 3.3. 성별에 따른 공유주거요구 차이

#### (1) 셰어하우스 거주 의사 및 기대사항

셰어하우스 거주 의사 조사결과, 남녀 모두 응답자의 2/3 이상이 거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셰어하우스와 같이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주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는 선호층의 요구에보다 구체적으로 부합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16>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

	남		여		계	
	f	%	f	%	f	%
있다	26	29.9	32	34.4	59	32.7
없다	61	70.1	61	65.6	122	67.3
계	87	100	93	100	180	100

셰어하우스 거주 시 기대 사항은 <표 17>와 같다. 남녀 모두 ‘주거비 및 생활비 감소’ ‘거주자 간의 교류 증진 및 외로움 감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1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청년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외로움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셰어하우스에 대한 기대 사항 중 ‘안전 및 보안에 유리’ 항목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안전과 관련된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셰어하우스 거주 시 기대사항

주요 장점	남	여	t 값
주거비 및 생활비 감소	3.86	3.95	-.617
가격대비 넓고 쾌적한 공간	3.38	3.27	.716
안전 및 보안에 유리**	2.87	3.45	-3.481
거주자간의 교류증진 및 외로움 감소	3.56	3.53	.224
가사일 분담	2.94	2.91	.151

\*\* p<.01

#### (2) 희망하는 셰어하우스 구성방식

셰어하우스 거주 시 구성 방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남/녀 전용과 혼용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성별로 별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남/여 전용 방식에 대해 86%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표 18 참조>. 이는 앞의 항목들 중 안전, 보안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꾸준히 여성의 관심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셰어하우스 구성 방식

사용방식	남		여		계	
	f	%	f	%	f	%
남/여 전용	41	47.1	80	86	121	67.3
남/여 혼용	46	52.9	13	14	59	32.7
계	87	100	93	100	180	100

### (3) 셰어하우스 거주 시 공유가능 공간

<표 19>은 셰어하우스 이용 시 공유가능 공간에 대한 응답이다. 침실 공유에 대해 남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직결되며, 셰어하우스에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 사유와 유사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셰어하우스 거주 시 공유가능 공간 (중복응답 허용)

공유가능공간	남		여	
	f	%	f	%
침실	0	0	4	6
화장실	18	28.6	19	28.4
샤워실	12	19	13	19.4
거실	28	44.4	40	59.7
주방	37	58.7	35	55.6
세탁실	35	55.6	35	52.2
기타	1	1.6	3	4.5
전체	131	207.9	149	225.8

### (4) 공동생활 중 문제가 되었던 점

공동생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11명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중 문제가 되었던 점을 조사한 결과 <표 20>와 같았다. 남성은 소음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여성은 손님 방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여성이 더 높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여성이 공동생활에 대해 남성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중 '욕실사용' 'TV시청 음악듣기 등' '손님 방문' 항목에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손님 방문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공간에 모르는 타인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0> 공동생활 중 문제가 되었던 점

주거문제	남	여	t 값
프라이버시 침해	3.61	3.68	-0.456
취침	3.41	3.44	-0.200
식사	2.61	2.80	-1.047
욕실사용*	3.28	3.68	-2.266 *
TV시청, 음악듣기 등*	3.11	3.47	-2.076
소음	3.66	3.83	-1.089
물건수납	3.27	3.41	1.833
가사일분담(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등)	3.24	3.49	-1.429
손님 방문**	3.31	3.90	-3.244

\* p < .05 \*\* p < .01

청년 1인 주거 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가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주거 대안의 경우 성별에 따른 주택 내 특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요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표 21>에서

보이는 것처럼 1인가구의 생활 중 힘든 점, 추가적으로 설치되기 원하는 공간, 공유 주택의 특성, 공동생활 중 문제가 된 점,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의 요구도, 그 외의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표 21>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특성 비교

	공동	남성특화	여성특화
주택입지	직장과의 거리/교통이 용편의 생활편의시설	-	방법 및 보안
주택특성	채광, 공기 질, 보안, 냉난방, 자연환경 쾌적성, 주택비용의 적정성	-	실내 분위기, 내구성-안전성
선호하는 공간 구성	방2개 + 거실 및 주방	방1개 + 거실 및 주방	-
주택 내 추가 희망공간	-	서재	드레스룸
주택 내 확장 희망공간	주방,	욕실	침실
주택 내 축소 희망공간	-	-	-
1인가구 생활 중 힘든점	-	-	경제적부담, 안전 및 보안, 택배수령 및 발송, 고장수리, 무거운 짐 운반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	대출지원	주거관리비보조
셰어하우스 거주 의사	없다	-	-
셰어하우스 기대사항	거주자간의 교류 증진 및 외로움 감소, 주거비 및 생활비 감소	-	안전 및 보안에 유리
희망 셰어하우스 구성방식	-	-	남/여 전용
셰어하우스 거주 시 공유가능 공간	화장실, 샤워실, 주방, 세탁실	-	거실
공동생활 중 문제가 되었던 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취침	-	손님 방문욕실사용TV시청, 음악듣기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견해	헬스장, 도서관, 주민카페, 공공대여서비스	-	개인업무공간, 야외운동장, 게스트하우스, 무인택배서비스, 무거운 짐 운반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한 견해	안전을 위해 경비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평대는 빌트인(수납/가전)을 최소화하고 방을 크게 하는 편이 낫다.	방이 작아지더라도 불박이장은 많을수록 좋다. 세대내 복층(다락방) 설치의 공간활용에 효율적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에서 지적된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요구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주거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청년1인가구를 위한 주거대안에 선행연구는 셰어하우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거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에 비하여 이동 및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없다보니 입지적 고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지만 출퇴근 및 통학 등 빈번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공교통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형 단독 임대 주택 등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을 더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주거의 경우 셰어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침실은 가능한 1인실 형태로 공급하며, 화장실과 샤워실 역시 개별 공급이 가능하다면 개별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항목들에 대한 응답에서 더 넓은 수납과 관련된 응답이 있었는데, 특히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계획 시 더 많은 붙박이장 또는 공용 수납공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공용 공간 계획 시 실내에서 외부 손님을 맞을 수 있는 라운지가 필요하다. 공동생활 중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손님 방문 시 문제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개인공간과 구분되는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구성 방식은 남녀 전용 또는 층을 분리한 혼성과 같이 구분해주는 것이 좋다. 차별적 공간제공 뿐만 아니라 안심키가서비스와 같은 주거서비스도 차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여성 응답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았는데 많은 청년주거가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닐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초기부터 정책적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축소 공간 1순위로 거실이 나왔으나 이는 청년 1인가구의 규모가 협소한 주거 공간에서 특정한 용도가 없는 거실공간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1인가구의 개별 주택인 경우 실제 사용을 위한 공간을 할당하고 통로 공간이나 불특정용 용도로 거실공간이 사용된다 보니 이러한 거실 공간에 대한 좀 더 주의깊은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셰어하우스 거주 시, 공유가능 공간에 대한 답변에서 남녀 공통적으로 주방, 거실, 세탁실 세 곳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셰어하우스 공간 계획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방과 거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거주자들간의 생활공유와 공동체 형성 지원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중점을 두어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대안에 대하여 입지적 특성, 주요

주택 특성,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 및 선호 등에 대한 기본적 주거요구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안전, 주택 내 선호 공간, 주거 서비스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요구와 선호도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주거 요구가 더 많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셰어하우스 시장에서 이용자의 80%를 여성이 차지하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별 주거분리와 함께 위에서 나타난 주거요구를 반영해 준다면 이용 만족도와 거주 희망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력 정도의 차이가 있는 취업 전 후의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실태 비교와 그에 따른 차별적 주거요구를 파악하고 적정 주거 면적 및 비용, 주거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김진영,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 계획을 위한 주거의식과 주거요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4권 4호, 2013.8
2. 박지은, 강순주, 모정현, 셰어하우스와 플랫폼 기숙사의 특성분석과 대학생 수요자 인식,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8권, 2호, 2016.11
3. 이종찬, 강윤도, 김병선,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거주활용계획 연구-암스테르담 대학생기숙사 키트보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2014.12
4. 임경지,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복지동향, 2015.2
5. 임지수, 권오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공유형 셰어하우스 탐색과 발전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8권, 2호, 2016.11
6. 지예진, 신화경,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권, 1호, 2017.4
7. 최은영 외,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2014.3
8. 오이현, 유진상, 국내 셰어하우스 내부공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57호, 2017.2
9. 심단우, 황의준, 20대 1인 거주자들을 위한 셰어하우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10
10. 김하윤, 김태환, 박태원, 셰어하우스 거주자 특성 및 주거공간 인식에 관한 연구, 2017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 한국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발표자료집, 2017.6
11. 정다운, 모정현, 셰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11
12. 통계청, 국민주택총조사, 2015

[논문접수 : 2017. 12. 12]

[1차 심사 : 2018. 01. 09]

[2차 심사 : 2018. 03. 19]

[게재확정 : 2018. 04. 16]